

세월은 악몽을 지울 수 없다

釜山의 겨울은 눈이 귀한 대신 바람이 유난히 많다. 바다로 부터 불어드는 바람은 골수를 도려내는듯 아리고 매운 것이어서 겨울 나기가 꽤 힘든 것이다.

4계절 내내 우리 소방관들은 한시도 한가로울 수 없는 형편이지만 겨울은 특히 더 긴장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철저하고 세심한 사전준비를 하면서도 늘 부족한 느낌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것도 이 계절인 것이다.

그해 겨울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통금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직 통금에 쫓겨야 하는 시절이었다. 통금을 앞둔 거리에서 사람들이 종종 걸음질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하기를 비는 심정은 전 소방관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했다. 누구에게나 더 없이 소중한 생명과 안락한 보금자리가 일순간의 부주의나 방심으로 잿더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하고도 가냘픈 기도를 무참히도 짓밟으며 악몽과도 같은 그날의 사고는 일



김 종 섭
(부산 북부소방서
삼락파출소 소방장)

어나고야 말았던 것이다.

우리 분대는 부전동 소재의 주촌 화재현장 출동명령을 받고 2~3분 후쯤 현장에 도착했다. 그때는 이미 '주촌'이라는 네온사인 간판 부근이 화마의 붉은 혀바닥으로 덮여 있었고 막 2층으로 불길의 옮겨가려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2층의 진화 작업과 동시에 주촌 내부 수색작업을 시작했다.

첫발을 입구에 들여 놓는 순간 열기와 화연이 얼굴을 향해 달려 들었다. 순간 나는 움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혼탁한 공기속에서도 우리의 후각을 자극하는 것은 분명 노린내였기 때문이었

다. 옆에 계시던 소장님은 말씀 하셨다.

“김소방사 이상한 냄새 아닌 가?”

“그런것 같습니다. 엄호방수를 해야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소장님도 그 냄새에 대한 확실한 표현은 피하고 있었지만 가슴이 떨려움을 서로 느끼고 있었다. 소장님은 전문대원에게 인명피해가 있음을 다급하게 외쳤고 소장님의 엄호방수 명령과 동시에 우리는 주촌 내부에 투입됐다.

검은 연기와 열기는 우리를 향해 노도같이 밀려 나왔고 실내를 분간할 수 없는 자욱한 연기속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우리들의 눈 앞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인간애가 용기로 솟구쳐 올랐다.

분대장님의 명령에 따라 낮은 포복 자세로 바닥에 붙어 수색을 시작했다. 입구에서 부터 3m 정도 수색했을 때였다. 손에 닿는 감각으로 틀림없는 사람이었다. '사람이 죽고 있다. 빨리 구조하라'는 고함을 치고 먼저 닿는 시체인지 사람인지를 걸머지고 정신 없이 밖으로 기어나왔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아스팔트위에 눕혀 놓고 다음 조난자를 구하려고 진입할 때 다른 분대 요원이 도착하여 합동으로 이들을 업어내기 시작했다.

사람의 생명이란 존귀하고도 귀중하다.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은 내부에 비치된 집기들로 쉽게 알 수 있었다. 그것들은 최후의 은신처 노릇을 한 것이었다.

주춧대의 물통 속에 세사람, 네사람씩 머리만 쭈서놓고 있는 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치다 질식한 창문쪽 한무리의 군상들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몸서리쳐지는 광경이었다. 30명 남짓한 지하홀에 50명 목숨들이 살기위해 아우성치다 여린 미동조차 없이 누워 있는 그곳은 이수라장 그것이었다.

우리 소방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를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급한대로 옥내의 구조자만 바깥 아스팔트위에 일렬로 누이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대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혼신의 힘으로 구조작업에 임했다.

나는 다섯번째 구조자를 업고 나와 길에 누이고 주위를 둘러 보았다. 일렬로 눕혀진 약30명 가량의 구조자들 중 겨우 한두 사람이 신음이라도 내는 정도였고 이미 싸늘히 식어버린 주검도 있었다. 한마디로 시체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날의 그 급박한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냉혈의 피를 가진 많은 얼굴들이다.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구하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지 못한 채 구경군밖에 될 수 없었던 사람들. 과연 이런 일이 소방관만의 책임이며 소방관에게만 맡겨진 일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 모두의 일인 것이다. 나는 소리쳤다.

“당신들 이게 구경거립니까? 사람이 죽어 가는데 이게 구경입니까?”

내 목에서 울음이 왈칫 치밀었다. 그들은 오히려 나를 미친것쯤으로 몰고가며 수근거렸다.

아마 그때 나의 행동과 몰골이 그들의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진화작업을 할 때 묻은 물이 찬 기온때문에 얼음으로 굳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연기 그윽음이 묻은 얼굴에는 유독 눈과 이빨만이 하얗게 반짝였을테니 말이다.

그러나 내 가슴에는 정의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 무엇보다 값진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와 긍지가 들끓고 있을 줄을 그들은 아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들은 구조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작업까지 병행했다. 의식을 잃은 그들의 무게는 보통때의 배가 되는 무게였다. 인근 병원에서 입원실이 없다며 환자 인수를 거부했다. 혹은 다른 병원에서 3명을 받았으니 우리도 3명만 받겠다는 식의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한사람씩 시체인지 부상자인지를 업고 그 무게조차 잊은 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병원을 전전했지만 많은 구조자를 인근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한 채 동래에 있는 시립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당시만 해도 12시 야간통행금지 시간이 지나면 택시도 없었고 지나는 트럭 밖에 이용할 수가 없었다. 간신히 트럭의 협조를 얻어 적재함에 구조자를 싣고 동래 시립병원까지 7~8km를 달려야만 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죄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추운 날씨였는데도 트럭 바닥에 눕혀진 부상자들에게 그 어떤 보온조치를 해주지 못한 채 수송했기 때문에 병원으로 향하는 도중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인근 병원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한형제 한핏줄임을 스스로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아끼는 따뜻한 인간애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흡하고 보잘것 없는가를 느낄 때마다 늘 허망한 생각뿐이다.

과연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했는가 혹시 내 가족과 내 일신의 안일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늘 마음에서 뱀돈다.

사고는 소방관 및 경찰의 사수가 있었는데도 사망 15명, 부상 28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남기고서 끝났다.

화마가 할퀴고 간 참담한 현장을 뒤로 하고 우리는 서로 붉어진 눈꺼를 추스리며 다음 출동준비를 해야했다.

사이렌 소리만이 누군지 모를 울음처럼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에는 누구도 살고 있지 않은 사막의 밤같이 출제만 느껴졌다. ■